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46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22,34-40)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22,34-40

2000년 전까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이기에 거룩한 백성이며 하느님께서 몸소 사랑으로 돌보시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계약과 모세와 함께 하신 시나이 계약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 위에 세워진 자부심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얻은 그 자부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율법-commandments>입니다.

율법은 하느님과의 약속에서 나온 법조항으로서 그 바탕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바리사이) 혹은 짐이 되어(일반백성) 바탕에 있는 '사랑'은 점차 뒤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계약과 계명에 본래 목적과 바탕을 되새길 수 있도록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새롭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당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이나 사랑실천에 관한 가르침을 들을 때 식상해 하면서도 정작 왜 실천해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른 채 꺼려하지 않았던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계명 혹은 삶에 있어서 으뜸가는 모토(motto)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임을 잊지 맙시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말이죠. 사실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삶도 사랑을 빼놓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는 자기 업적이 되고, 사랑이 없는 희생은 짐이 되며, 사랑 없는 삶은 무미건조합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의 자부심이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수원교구 10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10월은 개인과 가정의 성화, 나아가 인류 구원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는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함께 드리는 기도인 묵주기도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자주 바치도록 합시다.

※ 소공동체 모임을 더욱 활성화합시다. 예수님 자신께서 성령을 통하여 현존하시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공동체 모임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위기와 어려움을 서로 허물없이 나누고 격려하여 굳건한 믿음을 지탱하게 해 주는 작은 모임터이기 때문입니다.

※ 10월 16일에 있을 예비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비신자 모집에 힘쓰고 교리와 미사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으로 잘 돌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창세기 **11,1-15,21**

◈ 성경 퀴즈

***창세기 11,1-11,9까지 읽고 (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온 세상이 같은 ( )을 하고 같은 ( )들을 쓰고 있었다.
2. 자, 성읍을 세우고 ( )가 ( )까지 닿는 ( )을 세워 ( )을 날리자.
3. 그곳의 이름을 ( )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 )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 )으로 흩어 버리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12,1-9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 )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 )으로 가거라."
5. 주님이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이르신 목적지는 어디인가?
6. 아브람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7. 아브람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제단을 쌓은 곳의 이름은?

***창세기 14,17-15,21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 살렘 임금 멜키체덱도 ( )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 )였다.
9. 아브람이 멜키체덱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10.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 )을 받으리라.
11. 아브람아, ( )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12.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 )으로 인정해 주셨다.

*도전 문제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성서 안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개명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하느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신앙의 귀감이 되십니다(루카 1,30-33).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짧게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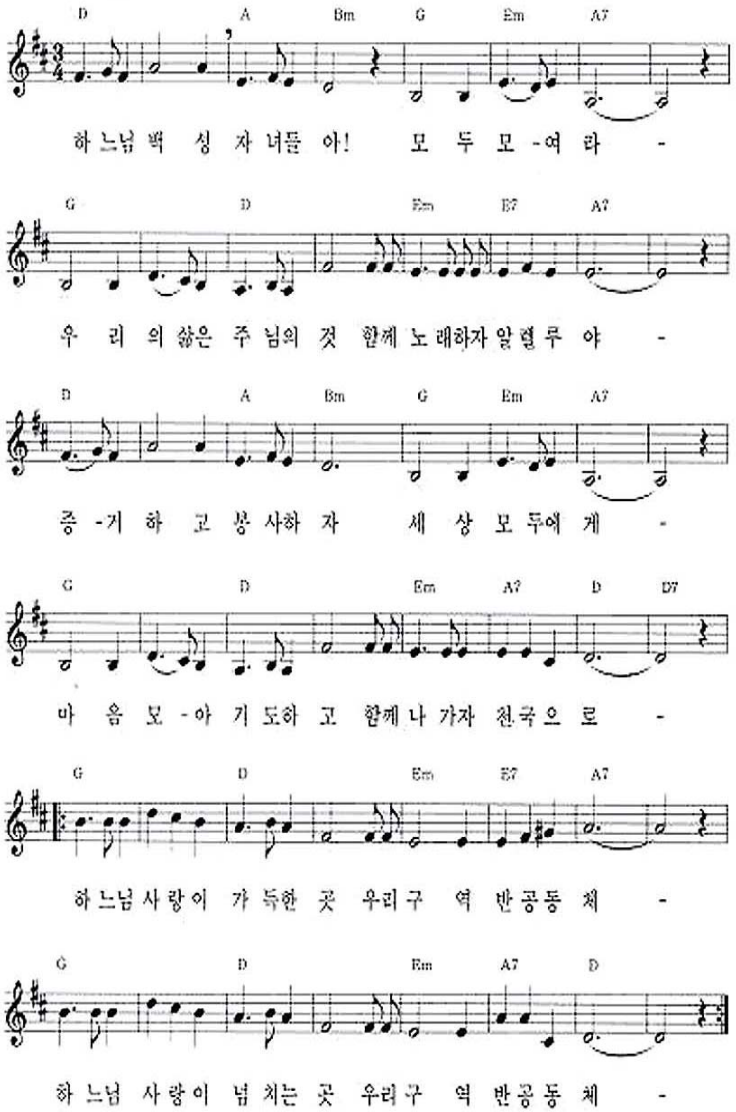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